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0회)

전도관 제7편

이만제단 시대 제4부

차례
이만제단 시대 4부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 님에게 합일되시어 일체로 완성 되시니 이분이 동방의 의인이다
이만제단 시대 5부
一. 승리자란?
二. 승리자는 조희성님
三. 승리자, 동방의인, 감람나무는 같 은 한 분이다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님에게 합일되시어 일체로 완성되시니 이분이 동방의 의인이다

2) 영모님과 그분이 낳은 아들의 관계

우리는 지금 동방의인 박태선 영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구세주의 존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동방의인을 찾아 살펴보면 우리는 박태선 영모님의 엄청난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분이구나라고 감탄하면서 지금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태선 영모님이 엄청난 큰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그 속에서 새로운 더 엄청난 존재를 잉태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꿈뱀이 탈피(脫皮)하여 매미나 나비로 나타나듯이 영모님에게서 엄청난 분이 탈피(脫皮)하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놀라움과 감탄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박태선이라는 성인(聖人) 속에서 조희성이라는 엄청난 구세주(救世主)가 탈피(脫皮)되어 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발견하였다. 구세주의 출현이 이와 같은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탈피하여 출현한다는 사실에 감탄과 놀라움을 감할 수가 없다.

격암유록 말운론에 있는 말을 한 가지만 더 예로 들겠다.
白馬神將出世時 赤火蛇龍林出運.
백마신출세시 적화사룡임출운
末運論 말운론
“백마탄 신장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화룡적사(火龍赤蛇) 즉 병진정사(丙辰丁巳)의 두 성인(두木人=林)이 출현할 운이다.”

보충설명:

백마는 금운으로 오시는 완성자를 말한다. 백마신장이 출현했다는 것은 화룡적사(火龍赤蛇) 즉 병진정사(丙辰丁巳)의 두 성인이 출현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병진년인 1976년에 영적아들이 태어나 1978년에 밀실로 들어가 연단받고 한 분의 구세주로 출현한 조희성 가진 분이 인생을 추수하시는 완성자 구세주다.

박태선 영모님은 생전에 “내가 백마타고 삼판하러 올거야”라고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모님이 백마가 되시는 완성자 구세주와 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로 박태선 영모님이

“내가 백마타고 삼판하러 올거야”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백마신장(白馬神將) 속에 합일된 금운의 완성자 구세주가 출현하여 인생을 추수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확인된 병진생과 정사생의 두 성인이 한 몸을 이루시어 한 분의 완성자로 출현하시기 때문에 두 분을 합쳐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박태선 영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구세주 출현의 역사를 찾아가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결론적인

구세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가지 않으면 도리어 엉뚱한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태선 영모님이 철저히 당신의 존재를 가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강력히 증거하실 때였다. 감람나무도 동방의인도 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당신 영모님도 예수의 종이라는 공식을 설정해 놓고 나가시던 시절이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여 혼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독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얻어지고 있는 결론적인 내용은 1980년도 이후에나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인 것이다.

이만제단 시대 제 5부

一. 승리자란?

1956년도는 박태선 영모님을 따르는 전도관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잊혀질 수 없는 황홀한 해가 된다. 처음부터 말을 한 것 같이 1956년도의 우리나라는 희망이라고는 눈곱만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때였는데 그와 같은 암울함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는 한국민족에게 희망을 던져준 한 해였기 때문이었다. 세계 30억이 넘는 교세를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책에 예언되어 있는 동방이 우리나라이고 또 그곳에서 동방의인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사41장)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되는 분이 박태선 영모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분은 열국왕들을 굴복시키는 왕중왕이라고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세계 열국에서 황금과 보물을 잔뜩 싣고 동방인 한 국으로 온다는 것이다.(사60장)

이와 같이 희망이 넘치는 말씀을 마구 쏟아놓으시는 박태선 영모님은 그야말로 당시의 한국민족의 구세주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또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박태선 영모님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성경의 엄청난 주인공들이 다 한국인이고 더욱이나 그 주인공이 박태선 영모님이라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신이 났던 기억이 난다.

또 재림예수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박태선 감람나무는 재림예수님의 길 예비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도 보잘것없는 나라요 민족이라고 생각되던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전세계를 대표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니 그저 황홀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들 우리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요 복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1956년 이만제단시대에 된 일들이다. 그런데 영모님은 이번에도 역시 처음 들어보는 승리자(勝利者)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다.

1) 승리자란?

감람나무 동방의인 등 처음 들어보는 존재에 대해서 놀라움 속에서 받아들이곤 했던 전도관 교인들은 또 승리자라는 존재를 듣게 된 것이다. 승리자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기이하고 놀랄기만하다. 그리고 왜 승리자(勝利者)인가?

승리자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는 창세기 32장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쌍둥이 형인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에 피난갔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

는 도중 압박각지에서 키가 구 척 같은 장정을 만나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였다. 밤새도록 서로 붙잡고 씨름을 하였으나 결판이 나지를 않았고 상대방 장정은 다급하여 야곱보고 잡은 것을 놓으라고 간청하였으나 야곱이 악착같이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그 장정이 다급하여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야곱이 놓지를 않자 그 장정이 하는 말이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축복을 하고 떠나갔다. 그 장정은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사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죽어도 놓지않겠다는 심정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매달린 야곱의 악착같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승리자)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 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창 32:28).”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긴자’란 뜻이다. 이 후부터 성경에서는 ‘야곱’이라는 명칭은 죄인의 대명사로 쓰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의로운 자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지렁이같은 야곱아 네 구속자는 이스

라엘의 거룩한 자니라(사41:14).”고 하여 영적 야곱이 죄과를 벗고 이긴 사람이 승리자라고 한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은 이긴자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자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충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승리의 피가 되고, 그 승리의 피를 받아서 이긴자가 되었다고 부인 설명을 하였다. 그러면서 완전한 삼단계의 성령을 받아 이루어진 사람이 곧 이긴자인데 이와같은 성령은 박태선 영모님외에는 지금까지 받은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의 성경을 읽어 주었다.

“대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이는 이에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홀로 물로만 아니요 이에 물과 피로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신이니 성신은 곧 진리니라. 대개 증거하는 자가 셋이 있으니 성신과 물과 피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나니라(요1서5:4-8).”

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엡2:8). 이 선물은 성신과 물과 피로서 임하는 성령이다. 이 세 가지 성령은 완전한 성령인데 “성신은 불로 임하는 성령이고, 물은 생수의 성령이고, 피는 이슬같은 성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단계의 성령을 받은 자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고 설명을 하였다. 이 삼단계의 성령을 받으면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였다.*

以其生生也(이기생생야): 그리 사는 것을 삶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蓋聞善執生者(개문선집생자): 들은 바에 따르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陸行 不避 虺虎(육행 불피시호): 물로 가도 코뿔소와 호랑이를 피하지 않고

入軍 不避 甲兵(입군 불피갑병): 군에 들어가도 갑옷과 무기를 피하지 않는 다

兕无所投其角(시무소투기각): 코뿔소를 만나도 코뿔소가 뿔을 들대지 않고

虎无所措其爪(호무소조기조):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가 발톱으로 힐퀴지 않으며

兵无所容其刃(병무소용기인): 병사를 만나도 그에게 칼을 댈 곳이 없다

夫何故也(부하고야): 어째서 그런가? 以其无死地焉(이기무사지연): 그것들에 의해 죽음에 이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평상시 마음과 행동을 잘 닦아 수신하기 때문이다.*

김주호 기자

도덕경 해설

出生入死 출생입사

사는 곳으로 나아가고, 죽음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도덕경 50장 해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되 천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명에 못 죽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랄 할 것이다. 사람

의 본성(순수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천지에 속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제한 몸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생에 집착하는 사람은 후자에 속한다. 사람이 본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선한 본성에 따라 살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수도인(修道人)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한락만을 좇는 사람이 무도인(無道人)에 속한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다. 도인은 항상 순수본성을 좇아 살게 되므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엄격히 다스린다. 당연히 타인과 만물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서 그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안전할 것이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 권모술수를 서슴지 않고 남발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 보이지 않는 적이 많이 생기게 된다. 해서 언제 어느 때 위해를 당할지 모르며, 위험한 때에 그를 도우는 자가 없어 불상사를 당하기도 하고, 제명에 못 살고 단명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면 인간이 살

아가는 참 목적이 인간의 순수본성을 부단히 좇아 타인과 만물을 이롭게 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참 평화의 세상,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出生入死(출생입사): 사는 곳으로 나아가고, 죽음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세상 삶의 현장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있다. 生之徒十有三(생지도십유삼): 사는 길에 이르는 자가 열에 셋이 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열에 셋이 있고

死之徒十有三(사지도십유삼): 죽음에 이르는 자가 열에 셋이 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도 열에 셋이 있다

而民生生動(이민생생동): 사람이 살 겠다고 그 움직임대로 살아가노라면

사람이 살겠다고 양자의 길을 살아가 게 되는데

皆之死地十有三(개지사지십유삼):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도 열에 셋이 있다

夫何故也(부하고야): 어째서 그러한가?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